

SKT 유심칩 교체 첫 날 대리점마다 '장사진'

광주·전남, '오픈런'에 품질 사대
유심 재고 소진돼 발길 돌리기도
고객들 '해킹 사고 소식에 불안'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휴대 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칩을 무상 교체해 주기로 한 첫 날인 28일 광주·전남의 휴대전화 대리점에는 유심칩을 교체하려는 고객들로 붐볐다. 오픈런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2·9면>

대리점 개점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픈런'으로 긴 줄을 서야 했고, 재고가 다 떨어진 오후 시간대에도 각 대리점에는 유심칩을 교체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년층들은 자녀들에게 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문의하는 등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는 정오쯤부터 '유심 재고소진으로 유심 보호서비스 가입만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었다. 이 매장에 있던 유심칩 200개는 오전 10시 개점 이후 2시간여만에 동이 났다. 유심 재고가 없다는 문구에도 시민들은 혹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으로 매장을 방문했지만,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인근의 또 다른 대리점에서는 이날 다음날 수량까지 미리 받은 400개 유심칩을 오전 11시께 소진했다. 대리점 직원은 "내일 유심이 입고될 지 미지수"라며 "지금으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내한 후 유심 교체 예약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칩을 교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유심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유심 정보를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심 스와핑'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커들이 이른바 '복제폰'을 만들어 휴대전화 인증 번호 등 본인 인증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에서 자산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 등 내용을 앞세워 외부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허위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는 터라 대리점에서 직접 유심칩을 교환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이날 대리점을 방문한 박종운(91)씨는 "지난해 12월에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옮겼는데 후회스럽다"며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SK텔레콤에서 빠르게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오전 10시부터 대리점을 찾았던 안용석(79)씨는 대리점 앞에 70여 명이 줄을 서 있자 칩 교체를 포기하고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

안씨는 "유심칩을 바꿔준다고 해서 아침 일찍왔는데 재고가 없어 허탕을 쳤다. 바뀌야 할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라며 "내일도 오전 10시에 200개 정도 유심칩이 온다는데 바꿀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다른 매장을 돌아다녔는데, 대기자가 많고 재고가 언제 생길지 몰라 예약을 받지 않았다. 겨우 한 매장에서 유심 예약을 신청해놓고 왔다"고 말했다.

유심칩 교환에 실패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문영태(85)씨는 유심 해킹으로 통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문씨는 "각정돼서 직원에게 꼭 바뀌어야 하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다, 안 해도 괜찮다 등 답변만 받았다"며 "딸이 엿그제 통신사 해킹 사고가 났으니 모르는 사람한테 걸려온 전화를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리점 직원을 또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심칩 교체 주기가 5~10년으로 길다 보니 재고 자제를 많이 쌓아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려 순식간에 재고가 동나버렸다는 것이다.

▶2면으로 계속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천 인근 시민 휴식·여가 공간 확대한다

광주시, '2025 신활력 벨트' 실행
신규투자보다 기존 과제 누수 없게

광주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인 '5대 신활력 벨트 사업'에 광주천 인근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의 확대하는 사업을 추가한다.

광주시는 올해 기존 사업에 3개 사업을 추가해 총 30개 사업으로 이어가지만, 대규모 예산의 투입이 되는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 과제를 촘촘히 챙기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2025년 5대 신활력 벨트 실행계획(안)을 내놔다.

'5대 신활력벨트'는 광주시 주요 거점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조성 등이다.

영산강과 황룡강변에 시민들의 휴식과 체험형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는 기존 7개 사업을 올해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7개 사업 중 서창 감성조망명소는 올해 준공이 완료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영산강 유역에 맑은 물 순환형 공급 체계 구축(984억원)과 영산강

수질 정화 생태습지 조성(140억원), 빛고를 수상 공연장 조성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진행된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256억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160억원) 조성 사업은 올해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송산섬 테마시설 조성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 수심 조사 측량을 계획 중이다.

3개사업으로 진행됐던 광주천 생태 힐링벨트는 올해 6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기존 사업인 서방천 기아첸퍼런스파크 연계형 친구공간(20억 5000만원)은 올해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광주천 생태환경 정비 사업(380억원)으로는 광주천변 꽃길 이 조성된다. 또 광주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첼피언스필드 주변·ACC주변·36억원)도 신설돼 정비 중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광천 에코브릿지(공중보행로·151억원) 조성에 대한 설계공모가 추진되고, 60억원이 들어가는 발산 생태축 복원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청춘문화누리터는 올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6개 사업 중 광주송정역 주차빌딩과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2개 사

업이 완료 됐다. 하지만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공사는 낙찰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계약이 취소돼 사업이 보류 상태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올해 토비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의 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정역 역사는 국가 철도 공단이 올해 증축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장륙교 재가설 사업은 올해 공사가 추진된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창업지원 핵심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 활성화 사업으로 확장된다. 연구개발(R&D) 융복합 창업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도 공사 중입에 따라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역 창업벨트' 사업이 순항중이다.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을 위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사관학교 2기 운영 등 5개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문화·디지털 기반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구와 사업부지 매입 협의에 나선다.

광주시는 사업별 성과목표를 계약화 해서 벨트별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협의 등을 통해 성과를 낼 계획을 내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
광주 남구 청년 따순 주먹밥

광주의 특별한 의미(5·18정신)인
주먹밥을 통해
나눔 공동체 확산

사업기간 2025년 4월 ~ 12월

대상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청년 누구나

남구 청년 따순 주먹밥?
누구나 쉬어가고, 누구나 먹고가는 휴게공간 제공을 통한
고립 위기 청년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운영방법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민관합동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 상시운영
* 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 운영기관/장소
· 양지종합사회복지관/청년와락 (남구 독립로 2, 2층)
·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달뫼커뮤니티센터 (남구 구성로 38번길 10, 3층)
·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인애복지관 별관 (남구 용대로 91, 1층)

문의 : 남구 복지정책과 (☎ 062-607-3311)

광주광역시 남구
GWANGJU NAMGU